

五行 이론으로 본 五帝의 기원과 형성

박 성 우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 주저자)

문 치 웅

(홍익재단 역사문화연구소장, 공동저자)

- I. 서론
- II. 五帝 개념의 형성 과정
- III. 갑골 자료로 본 ‘五帝’의 기원
- IV. 결론

<논문 요약>

이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의 전래문헌을 통하여 五帝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출토된 殷商 갑골 자료를 통하여 그 본질적인 형태를 추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계보가 동아시아 역사 흐름에 뿌리내려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각한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반추해 보았다. 五帝는 고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전국시대 말엽 추연의 五行 상생상극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군주의 제위가 계승되는 기전체 형태의 계보가 작성되었다.

일찍이 殷商시기에 이미 지리적 관점을 동·남·서·북·중 다섯 형태로 구분한 五方 인식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층이 거처하는 공간 중앙에서 사방을 대상화하며 중요 의식 행위를 거행하였거나, 중앙을 商 또는 中商으로 칭하며 사방을 각각 신격화하여 명명하는 동시에 제사와 점을 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섯 구역의 책임자 속성을 지닌 五臣의 형태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반복적으로 확대 변천되어 필사된 전래문헌에서 五帝를 포함한 五官, 五臣, 五神, 五佐라는 명칭, 그리고 만사 만물이 다섯 방위에 배속되는 동아시아 고유의 사유체계가 형성되었다.

이 같은 공간 중심의 다섯 형태와 함께 동주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五行 상생상극의 이론이 체계화되었고, 만물의 현상을 이에 의존해 해석하려는 시도가 발생되었으며, 왕조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변천 또한 이를 통해 풀이되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지리방위적인 다섯 공간에 배속된 五帝와 五行 상생에 기초한 五帝는 서로 별개의 결과물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적 관점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시간적 관점으로 확대 변천되어 왕조 건설의 합리성과 정통성 확보에 활용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주시기와 진한시기에 五行 상생이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왕조의 계보가 가공 편성된 지배층 집단 중심의 五帝가 창출되어 형성된 것이다.

주제어: 五行, 五方, 五帝, 五行相生, 五行相剋.

I. 서론

‘五帝’는 『周禮』, 『禮記』, 『荀子』, 『莊子』, 『戰國策』, 『春秋繁露』, 『史記』, 『韓詩外傳』, 『大戴禮記』, 『孔子家語』 등의 고대 문헌에서 다섯 명의 帝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서술되었다. 이는 문헌의 작성 시기와 상이한 저자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五帝에 설정된 인물들이 대부분 東周시기 유행하기 시작했던 木·火·土·金·水라는 五行과 연계되어 군주의 제위가 차례대로 계승되는 기전체 형태의 계보로 작성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五帝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쟁되어 왔고, 일찍이 徐旭生은 논의되었던 핵심 견해를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 이들의 이야기는 순전한 신화이며, 고대에는 이들이 결코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들은 백성의 제왕으로, 이전 전통을 계승 받아 표현되었다. 세 번째, 五帝는 신격에서 기원되었지만, 이들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결코 완전히 가공된 것은 아니다.¹⁾

‘五帝’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근거해 선정된 다섯 명의 인물이 帝로 추대되어 고대 문헌에 기록되었는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물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荀子·非相』에서 “五帝를 제외하고 후세에 전해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며, 五帝 가운데 후세에 전해지는 정사가 없는 것은 공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五帝之外無傳人, 非無賢人也, 久故也. 五帝之中無傳政, 非無善政也, 久故也).”라는 내용을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듯이 전래문헌을 살펴보면 五帝의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공적과 다스린 나라, 도성의 위치, 영토의 범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1) 徐旭生, 「五帝起源說」,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年, 231쪽.

더욱이 五帝의 대상 인물에 대해 『孔子家語』 五帝 24편에서는 太昊, 炎帝, 黃帝, 少昊, 顓頊²⁾으로 구성되었고, 같은 책 五帝德 23편에서는 黃帝, 顓頊, 帝嚳, 堯, 舜, 禹³⁾으로 구성되어 동 서적에서 서로 다른 인물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史記·五帝本紀』에 보이는 五帝인 黃帝, 顓頊, 嚳, 堯, 舜의 구성과도 일치하지 않아 五帝의 위치와 역할, 이들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문헌 간에 서술된 五帝에 대한 인물 구성이 서로 달라 문헌 기록의 진실 여부와 어떠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다섯 명의 帝가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 확인되는 전래문헌은 대부분 전국시대 후기 이후의 자료들로 당시 보유된 정보와 사상, 사회 문화가 반영되었고, 이에 전수 과정에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제작되어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친 기록 문헌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五帝의 인물과 원류, 형성 과정 및 정립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五帝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五帝는 다섯 명의 帝를 말하고, 帝는 일반적으로 최고 존엄한 대상을 가리킨다. 帝에 대한 기록은 현재 활용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 자료인 殷商시대 갑골문에서도 확인되는데, 살펴보면:

점치기틀: 帝가 이번 (윤달) 13월에 천둥을 칠 것이다.

(貞: 帝其及今十三月令雷) 『合』 14127正

壬申일에 균열을 내어古가 점치기틀: 帝가 비가 오도록 명령할 것이다.

(壬申卜, 古鼎{貞}: 帝令雨) 『合』 14129正

왕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길: 帝가 지금 2월에 천둥을 내릴 것이다. 만약 丙일에 내린다면 不吉하다. 눈이 내릴 것이다……

2)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初編, 孔子家語疏證(三)』, 上海: 商務印書館, 1985年, 161쪽.

3)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初編, 孔子家語疏證(二)』, 上海: 商務印書館, 1985年, 157-160쪽.

(王占曰: 帝佳{惟}今二月令雷. 其佳{惟}丙不吉. 雪……) 『습』 14129反

경술에 균열을 내어 짐치기를: 제가 가뭄을 내릴 것이다.

(庚戌卜, 貞: 帝其降堇) 『습』 10168

제가 왕에게 우환을 내릴 것이다.

(帝其乍{作}王囿) 『습』 14182

殷商시기의 帝는 일반적으로 초월적 존재, 즉 자연현상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절대권능의 최고 존엄한 대상으로 등장한다. 漢代 『說文』을 보면, “帝는 살피는 것이다. 천하의 왕의 호칭이다. 上을 의미요소로 하고, 束을 소리요소로 한다. 𠩺은 고문 帝이다(帝, 諦也. 王天下之號也. 從上, 束聲. 𠩺, 古文帝).”라고 하여 후대로 내려오며 절대적 위상을 지닌 초월적 존재에서 점차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고대 문헌 자료의 五帝와 관련된 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하여 五帝의 형태와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기원을 추적하는 데에 있다. 특히, 夏 이전 시기의 계보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옳은지, 아니면 夏의 禹 왕조 건설의 합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설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옳은지 고민해 보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五帝의 원류와 의미에 대하여 정립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五帝 개념의 형성 과정

五帝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적에 보이는 五帝의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五帝’의 명칭은 여러 전래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인물들의 활동 시대가 夏 이전의 堯, 舜까지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선정된 인물의 구성은 문헌의

서술 시기와 저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다. 前漢시기 孔安國의 『尙書·序』를 보면, “복희, 신농, 황제의 서적을 ‘三墳’이라고 하고, 지켜야 할 큰 도리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소호, 전욱, 고신, 당, 우의 서적을 ‘五典’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도리에 대하여 기재하였다(伏犧·神農·黃帝之書, 謂之“三墳”, 言大道也. 少昊·顓頊·高辛·唐·虞之書, 謂之“五典”, 言常道也).”라고 하여 孔安國은 소호, 전욱, 고신, 당, 우라는 다섯 명의 인물을 제시하였고, 陸德明은 『釋文』注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소호는 금천씨로 이름은 지이고, 자는 청양이며 한 편으로는 현효라고 한다. …… 금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첫 번째이다. 전욱은 고양씨로 희씨 성이고, …… 수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두 번째이다. 고신은 제곡인데 희씨 성이며, …… 목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세 번째이다. 당은 제요로서 성은 이기씨이다. …… 화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네 번째이다. 우는 제순으로서 성은 요씨이고 국호를 ‘유우’라 하였고, …… 토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다섯 번째이다. 先儒가 삼황오제의 해석은 공안국과 동일하고, 모두 발제에 보인다(少昊, 金天氏, 名摯, 字青陽, 一曰玄囂 …… 以金德王, 五帝之最先. 顓頊, 高陽氏, 姬姓 …… 以水德王, 五帝之二也. 高辛, 帝嚳也, 姬姓 …… 以木德王, 五帝之三也. 唐, 帝堯也, 姓伊耆氏 …… 以火德王, 五帝之四也. 虞, 帝舜也, 姓姚氏, 國號有虞 …… 以土德王, 五帝之五也. 先儒解三皇五帝與孔君同, 竝見發題).”⁴⁾

위 내용을 살펴보면, 소호를 시작으로 재위 순서에 따라 서술되었고, 또한 少昊는 금덕왕, 顓頊은 수덕왕, 高辛은 목덕왕, 唐은 화덕왕, 虞는 토덕왕으로 구분하여 五行 순환 이론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五帝는 宋衷注의 『世本』 「五帝世系」와 徐宗元이 편집한 『帝王世紀』 등에서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⁵⁾ 이 외에도 기전체 방식으로 五帝의 명칭

4) [唐] 陸德明 撰, 『經典釋文』, 北京: 中華書局, 1983年, 36쪽.

5) [漢] 宋衷 注, 『世本八種』, 上海: 商務印書館, 1957年, 3-6쪽. 徐宗元 輯, 『帝王世紀輯存』, 北京: 中華書局, 1964年, 1쪽.

을 제시하고 제후의 업적과 삶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한 사마천의 『史記』 「五帝本紀」를 언급할 수 있다.

『史記』 「五帝本紀」: “황제는 소전의 자손으로,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현원이 다. …… 토덕의 상서로움이 있어 황제로 칭하였다. …… 그의 후손 창의를 자손 고양(高陽)이 즉위하니 제전옥이다. …… 전옥이 죽고 현효의 후손 고신이 즉위하니 제곡이다. …… 제곡은 진봉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방훈을 낳았다. 또한 자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지를 낳았다. 제곡이 죽자 지가 대신 즉위하였다. 제지가 즉위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죽자 동생 방훈이 즉위하였고, 바로 제요이다. …… 순이 말하길, ‘천의 뜻이다’라고 하며 비로소 도읍으로 돌아와 천자로 즉위하니 제순이다(黃帝者, 少典之子, 姓公孫, 名曰軒轅. …… 有土德之瑞故號黃帝. …… 其孫昌意之子高陽立是爲帝顓頊也. …… 顓頊崩, 而玄囂之孫高辛立是爲帝嚳. …… 帝嚳娶陳鋒氏女, 生放勳. 娶嫫毘氏女, 生摯. 帝嚳崩, 而摯代立. 帝摯立, 不善(崩), 而弟放勳立, 是爲帝堯. …… 舜曰: 「天也, 夫而後之中國踐天子位焉, 是爲帝舜」.”⁶⁾

「五帝本紀」는 『史記』의 첫 번째 편으로, 黃帝, 顓頊, 帝嚳, 唐堯, 虞舜을 五帝로 칭하여 역사의 발단으로 보았으며, 土德으로 서술된 부분에 근거한다면 기본적으로 五行 순환 이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五帝의 시작은 黃帝이며, 앞서 제시한 『尙書·序』의 五帝와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세습 구조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史記』의 五帝 구성은 『大戴禮記』 「五帝德」의 五帝 구성과 동일하며, 이에 李學勤은 「五帝德」에 보이는 관점이 『史記』에 계속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⁷⁾

五帝의 공덕을 간략히 언급한 내용 또한 확인되는데, 『國語·魯語上』를 보면 “黃帝는 만물의 명칭을 잘 지어서 백성을 깨우치게 하고 재물을 공유하니, 顓頊이 능히 그것으로 다스렸다. 帝嚳은 三辰의 운행에 능하

6) [漢] 司馬遷 撰, 『史記』(全十冊), 北京: 中華書局, 1963年, 1-46쪽.

7) 李學勤, 「古史、考古學與炎黃二帝」, 『走出疑古時代』,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年, 41쪽.

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堯는 형법을 복잡하지 않게 고르게 하여 백성을 착하게 하였으며, 舜은 백성의 일에 힘쓰다가 들에서 죽었다(黃帝能成命百物, 以明民共財, 顓頊能修之. 帝嚳能序三辰以固民, 堯能單均刑法以儀民, 舜勤民事而野死).⁸⁾라고 서술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전래문헌에서 五帝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五帝에 선정된 인물이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주요 문헌에서 구성된 五帝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五帝 구분 정리

五行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구분		복희	염제	황제	소호	전욱	제곡	요	순
①	『尙書·序』 『世本·五帝世系』 『帝王世紀』				■	■	■	■	■
②	『史記·五帝本紀』 『大戴禮記·五帝德』 『孔子家語·五帝德』 『春秋繁露·三代改制質文第二十三』 『白虎通義』			■		■	■	■	■
③	『禮記·月令』 『孔子家語·五帝』 『淮南子·天文訓』 『呂氏春秋』	■	■	■	■	■			
④	『莊子外篇·繕性』 『戰國策·趙策二』 『周易·繫辭下』	■	■	■				■	■

위 <표 1>에서 정리된 문헌 중에서 항목 ①에 속하는 『世本』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世本』은 전국시대의 문헌으로 비록 고세본의 경우 唐代에 이미 유실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전래된 『世本』에서 또한 전

8)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組校點, 『國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166쪽.

국시대의 관점이 산견되었다고 판단된다. 宋衷 注 『世本』에 대한 清代 진가모(秦嘉謨)의 설명에 근거하면, 『世本』은 선진시대의 중요 사료 중 하나로 사마천의 『史記』 저술에 도움을 주었고, 漢代의 학자 班固, 劉向, 王允, 鄭玄, 趙岐에게 인용되었다고 한다.⁹⁾

漢代 宋衷 注의 『世本』을 보면 太昊伏羲, 炎帝神農, 黃帝有熊氏를 三皇으로 설정하였고, 少皞金天氏, 顓頊高陽氏, 帝嚳高辛氏, 帝堯陶唐氏, 帝舜有虞氏 순서로 五帝를 설정하였으며,¹⁰⁾ 더욱이 「帝王世本」에서는 黃帝, 少皞, 顓頊, 帝嚳, 帝堯, 帝舜의 순서로 간략한 업적과 함께 계승 형태의 왕조의 연혁을 서술하였다.¹¹⁾ 특히, 6명의 ‘帝’를 나열한 특징은 ‘帝’를 반드시 다섯 숫자에 제한하여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여러 문헌의 인용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世本』의 왕조 계보 형태가 五行 순환 원리와 대응한다는 사실이다. 土-金-水-木-火-土라는 五行 상생의 순서가 각각의 왕조와 짝을 이루어 土生金, 金生水, 木生火, 火生土의 관계로 계보가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世本』을 포함한 ①에 분류한 문헌의 五帝가 모두 金-水-木-火-土의 순서로 나열되어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라는 五行 상생의 구조를 보이고, ③에 분류한 문헌 또한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나열되어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라는 五行 상생의 구조를 보여 이들 문헌 모두 五行 상생 이론과 왕조의 계승 관계가 대응되어 수직적 형태의 계보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보면, 전국시대 말기 추연에 의해 정리된 五行 상생상승 이론과 五帝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五行 상생상극 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면,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요소의 상생·상극 관계를 방법론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 현상과 인간사의 모든 원리와 변화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五行 상생

9) [漢] 宋衷 注, 『世本八種』, 上海: 商務印書館, 1957年, 1쪽.

10) [漢] 宋衷 注, 『世本八種』, 上海: 商務印書館, 1957年, 3-6쪽.

11) 王雲五 主編, 「世本·帝王世本」, 『叢書集成初編』, 上海: 商務印書館, 1937年, 5-10쪽.

은 다섯 요소의 운행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이롭게 하는 관계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고, 五行 상극은 서로 다른 것을 억제 또는 저지하는 관계로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이다. 즉, <표 1> ①, ③에 분류한 문헌은 전국시대 말기 추연에 의해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五行 상생상극 이론에 기초하여 왕조의 계보가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거나, 혹은 五行 사상이 보편화되고 五行 상생 이론의 일정한 순서에 가탁해 왕조의 계보라는 근본과 대상이 다른 계통이 설명되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¹²⁾

12) 이 뿐만 아니라 東周시대에는 목·화·토·금·수라는 다섯 요소에 의한 五行 체계가 정립되고 전국시대 말엽 추연이 오덕중시설을 주창하며, 다섯 요소의 운행 논리에 의해 왕조 수립의 정당성과 정통성 확립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秦代 呂不韋가 집필한 『呂氏春秋』 「應同」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토기가 승한다’라고 말하였다. 토기가 승한 까닭에 그 색깔은 황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토를 근본으로 삼았다. ……우왕이 말하기를 ‘목기가 승한다’라고 하였다. 목기가 승한 까닭에 그 색깔은 청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목을 근본으로 삼았다. ……탕왕이 말하기를 ‘금기가 승한다’라고 하였다. 금기가 승한 까닭에 그 색깔은 백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金を 근본으로 삼았다. ……문왕이 말하기를 ‘화기가 승한다’라고 하였다. 화기가 승한 까닭에 그 색깔은 적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火를 근본으로 삼았다. 火를 대신할 것은 반드시 장차 水일 것이니, 天은 우선 먼저 수기가 승할 것을 보일 것이다. 수기가 승하는 까닭에 그 색깔은 흑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水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 다음은 장차 土로 옮길 것이다(……黃帝曰 ‘土氣勝, 土氣勝, 故其色尙黃, 其事則土. ……禹曰 ‘木氣勝, 木氣勝, 故其色尙青, 其事則木. ……湯曰 ‘金氣勝, 金氣勝, 故其色尙白, 其事則金. ……文王曰 ‘火氣勝, 火氣勝, 故其色尙赤, 其事則火. 代火者必將水, 天且先見水氣勝, 水氣勝, 故其色尙黑, 其事則水. ……將徙于土).”라고 하여 황제-토, 우왕-목, 탕왕-금, 문왕-화로 서술되어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의 순서로 서술되었고, 문왕을 이어 받는 왕조를 水의 기운으로 여겨 이 또한 수극화라는 五行 상극의 관계로 서술되었다. 더욱이 『史記·秦始皇本紀』에서는 “시황은 중시오덕의 원리를 받드니, 주 왕조는 화덕을 얻었고 진 왕조는 주 왕조의 덕을 대체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바야흐로 오늘 수덕이 시작되어 1년의 시작을 고치고, 하례를 모두 10월 초하루로 하였다(始皇推終始五德之傳, 以爲周得火德, 秦代周德, 從所不勝. 方今水德之始, 改年始, 朝賀皆自十月朔).”라고 하였고, 동 문헌 「封禪書」에서는 “황제가 토덕을 얻으니 황룡과 지

②에 분류한 문헌에 보이는 五帝 구성 또한 매우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史記』의 왕조 계보를 들어 논의해보면, 『世本』에 서술된 왕조의 계보와 동일하게 황제 - 소호 - 전욱 - 고신 - 제요 - 제순의 순서로 이어 지지만, 특이하게도 五帝의 구성을 소호를 제외하고 황제를 첫째로 삼아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사학자 徐旭生은 본래 동방에 있는 동이 집단의 재덕을 겸비한, 예컨대 태호, 소호 등의 인물이 오제 사이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이상하다는 의문을 보이기도 하였다.¹³⁾ 따라서 어떠한 연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왕조의 시작을 이와 같이 설정하였는지 궁극증을 자아내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五行 순환으로 ①, ③의 문헌을 보면 다섯 요소가 상생의 관계로 끊임 없이 순환 반복하고 기계적이며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즉, ②에 분류한 문헌은 소호를 삭제하고 황제를 五帝의 첫 부분에 배치한 다음 전욱을 시작으로 五行을 순환케 하여 황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역사의 始祖로 설정한 고대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담겨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淮南子·天文訓』을 보면 “중앙은 토이다. 그곳의 帝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토가 하며, 먹줄(繩)을 쥐고 사망을 제어한다. 그 신은 진

령이가 보였다. 夏 왕조가 목덕을 얻으니 청룡이 교외에 이르렀고, 초목이 무성했다. 殷 왕조가 금덕을 얻으니 은이 산으로부터 넘쳐흘렀다. 周 왕조가 화덕을 얻으니 적오의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다. 오늘 秦 왕조가 周 왕조를 변화시키니 수덕의 시대이다. 옛날 진문공이 사냥을 나가 흑룡을 포획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수덕의 길상물이다(黃帝得土德, 黃龍地螾見. 夏得木德, 青龍止於郊, 草木暢茂. 殷得金德, 銀自山溢. 周得火德, 有赤鳥之符. 今秦變周, 水德之時. 昔秦文公出獵, 獲黑龍, 此其水德之瑞.)”라고 하여 왕조의 흥폐와 경질을 토-목-금-화-수라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라는 五行 상극의 원리로 설명한 기록 또한 확인된다. 이에 진한시기 五行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年, 677쪽. [漢] 司馬遷 撰, 『史記』(全十冊), 北京: 中華書局, 1963年, 237쪽. [漢] 司馬遷 撰, 『史記』(全十冊), 北京: 中華書局, 1963年, 1366쪽.

13) 徐旭生, 「五帝起源說」,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年, 240쪽.

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라고 하여 黃帝는 중앙 土에 배속되어 있고, 사방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능한 군주의 역할로 서술되었다. 또한 『管子·四時』에서 “중앙은 土이다. 토덕은 사시의 시작과 끝을 충실히 돕고, 바람과 비로 토를 조절하여 이롭게 한다. …… 그 덕은 화평하고 고르게 시행되며, 중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다(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出入, 以風雨節土益力, ……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라고 하여 황제가 배속된 중앙 土는 사방을 다스리는 별존적인 존재로 항상 중시되어 왔으며,¹⁴⁾ ②에 분류한 문헌의 五帝를 黃帝로부터 선정한 이유 또한 五行의 土를 중시하는 인식이 담겨 지배층의 공간을 중심으로 패권을 장악한 공간의 모든 변화와 인간사의 모든 행위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五行의 土, 즉 五行의 중앙을 중시하는 형태는 문헌 곳곳에 산견되어 있다. 春秋시대의 관점이 담긴 『管子』 「幼官」 편을 보면, 군주의 법도와 정치 방식, 군사 제도를 四時와 접목하여 五行의 이치로 서술하였는데, 五和時節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八舉時節, 七舉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로 각각 표현하였다. 또한 五和時節은 중앙, 八舉時節은 동방, 七舉時節은 남방, 九和時節은 서방, 六行時節은 북방과 대응하고 있으며, 1년을 12일씩 30節氣로 나누어 봄 96일, 여름 84일, 가을 96일, 겨울 84일로 구분하였는데, 「幼官」 편의 시작을 알리는 五和時節은 사계절에 배속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일찍부터 지리적 영역의 중앙 土 공간이 중심되어 강조되었고, 이곳에 배속된 군주가 축이 되어 사방의 만사 만물을 제어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자연계에 발생하는 현상까지 주재한다

14)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合 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1년. 박성우,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의 확대 형태」, 『中語中文學』第87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2년.

는 천하 중심주의의 관념이 반영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리해보면, ②에 분류된 문헌의 五帝 형태는 黃帝를 강조하기 위한 인식, 즉 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중앙 집중화로, 이에 배속된 黃帝가 가장 존귀한 실체이고 黃帝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정통성 있는 왕조가 수립되었으며, 黃帝 계통이 중심되어 자연계의 모든 일이 발생되고 이뤄진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서 五行 상생의 원리에 성립하지 않는 모순된 구조의 五帝 형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¹⁵⁾ 결과적으로는 문헌마다 五帝의 구성이 다른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계보적 五帝는 과연 어떠한 인식으로부터 전승되었을까?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五行 상생 구조에 상응하는 五帝 이외에도, 중앙·동·남·서·북이라는 五方に 배속한 五帝의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後漢 말의 학자 채옹(蔡邕)은 『獨斷』에서 다섯 방위를 언급하며 五帝, 지배자 차원의 인사, 그리고 만사만물을 배속하여 정리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獨斷』 卷上: “동방의 신은 제태호, 그 신은 구망이다. 남방의 신은 제신농, 그 신은 축융이다. 서방의 신은 제소호, 그 신은 옥수이다. 북방의 신은 제전옥, 그 신은 현명이다. 중앙의 신은 제황제, 그 신은 후토이다(東方之神, 其帝太昊, 其神句芒. 南方之神, 其帝神農, 其神祝融. 西方之神, 其帝少昊, 其神蓐收. 北方之神, 其帝顓頊, 其神玄冥. 中央之神, 其帝黃帝, 其神后土).”¹⁶⁾

『獨斷』 卷下: “『주역』에 ‘帝가 震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震은 木이며, 이에 복희씨는 목덕왕으로써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木은 火를 생하여 복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화덕으로 계승받았다. 火는 土를 생하여 신농씨가 죽자 황제가 토덕으로 계승받았다. 土는 金을 생하여 황제가 죽자 소호씨가 금덕으로 계승받았다. 金은 水를 생하여 소호씨가 죽자 전옥씨가 수덕으로 계승

15) <표 1> ④의 복희(木), 염제(火), 황제(土), 요(火), 순(土) 순서의 五帝 구조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논의 한다.

16) [漢] 蔡邕, 『獨斷』 卷上, 12쪽.

받았다. 水는 木을 生하여 전욱씨가 죽자 제곡씨가 木덕으로 계승받았다. 木은 火를 生하여 제곡씨가 죽자 제요씨가 火덕으로 계승받았다. 火는 土를 生하여 제순씨가 토덕으로 계승받았다. 土는 金을 生하여 하우씨가 금덕으로 계승받았다. 金은 水를 生하여 은탕씨는 수덕으로 계승받았다. 水는 木을 生하여 주무왕은 목덕으로 계승받았다. 木은 火를 生하여 高祖는 화덕으로 계승받았다. 복희는 태호씨이다. 염제는 신농씨이다. 황제는 현원씨이다. 소호는 금천씨이다. 전욱은 고양씨이다. 제곡은 고신씨이다. 제요는 도당씨이다. 제순은 유우씨이다. 하우는 하후씨이다. 탕은 은상씨이다(易曰: '帝出乎震.'震者, 木也, 言虞犧氏始以木德王天下也. 木生火, 故虞犧氏物, 神農氏以火德繼之. 火生土, 故神農氏物, 黃帝以土德繼之. 土生金, 故黃帝物, 少昊氏以金德繼之. 金生水, 故少昊氏物, 顓頊氏以水德繼之. 水生木, 故顓頊氏物, 帝嚳氏以木德繼之. 木生火, 故帝嚳氏物, 帝堯氏以火德繼之. 火生土, 故帝舜氏以土德繼之. 土生金, 故夏禹氏以金德繼之. 金生水, 故殷湯氏以水德繼之. 水生木, 故周武以木德繼之. 木生火, 故高祖以火德繼之. 伏羲爲太昊氏, 炎帝爲神農氏, 黃帝爲軒轅氏, 少昊爲金天氏, 顓頊爲高陽氏, 帝嚳爲高辛氏, 帝堯爲陶唐氏, 帝舜爲有虞氏, 夏禹爲夏后氏, 湯爲殷商氏.)¹⁷⁾

<표 2> 다섯 배속 형태 정리표

五方	東方	南方	中央	西方	北方
五行	木	火	土	金	水
帝	①복희(태호씨) ⑥제곡(고신씨)	②염제(신농씨) ⑦제요(도당씨)	③황제(현원씨) ⑧제순(유우씨)	④소호(금천씨) ⑨하우(하우씨)	⑤전욱(고양씨) ⑩탕(은상씨)
五德王	①목덕왕	②화덕왕	③토덕왕	④금덕왕	⑤수덕왕
五神	구망	축융	후토	육수	현명

이상 『獨斷』 卷上은 방위를 동·남·서·북·중앙의 순서로 구분하고, 전능한 존재를 각각 배속하였다. 특히, 중앙을 마지막에 배치하여 방위 체계에 귀속하지 않은 듯한 개별적인 성질을 내포한 공간에 황제를

17) [漢] 蔡邕, 『獨斷』 卷下, 1쪽.

배속하였다. 아울러 『獨斷』 卷下에서는 오방과 五行이 함께 결합 되어 천하 군주 교체를 五行 상생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五方과 五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五方은 방향과 공간 구분이라는 실질적 개념이며, 五行은 원리와 이념을 도입해 풀이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先秦시기 출토자료에 근거한다면 五方은 五行을 탄생시킨 토대이면서 전국시대 이후 우주생성론과 도덕심성론의 범주에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끼쳤다. 일찍부터 패권을 장악한 영토를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영토 관점으로부터 점차 의미가 파생, 변천되어 여러 분야와 확대 또는 상호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木·火·土·金·水라는 五行 또한 목축과 농경사회의 삶의 터전이 중시되는 ‘土’라는 중심 공간에서 차가운 성질의 ‘水’는 추운 북쪽, 따뜻한 성질의 ‘火’는 더운 남쪽,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는 ‘木’은 해가 뜨는 동쪽, 생명의 소멸을 의미하는 ‘金’은 해가 지는 서쪽에 배속하고,¹⁹⁾ 점차 후대로 내려오며 이 다섯 요소의 순환을 통해 만사만물의 생성 원리와 왕조 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활용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左傳』 昭公29年을 보면, “그러므로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五官이라고 한다. 이 오관은 실제로 나란히 씨와 성을 받고, 작위를 받아 상공이 되었으며,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한 신이 되어 사직과 오사의 제사되어 준봉을 받는다. 木正을 句芒이라고 하고, 火正을 祝融이라고 하고, 金正을 蓐收라고 하고, 水正을 玄冥이라고 하고, 土正을 后土라고 한다(故有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爲上公, 祀爲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라고 하여 오관과 오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논

18) 박성우,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의 확대 형태」, 『中語中文學』 第87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2년, 228쪽.

19)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合 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년, 228-229쪽.

하기 전에 木正·火正·金正·水正·土正이라는 五行으로 동·서·남·북·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미 어느 정도 정착하여 정형화되었고, 아울러 다섯 방위에 관리를 각각 배속하는 표현 또한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상 제시한 문헌 기록을 정리하면,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の 틀 안에 배속되어 각각의 방위를 담당하는 五帝와 함께 목·화·토·금·수라는 五行 상생의 순환에 근거하여 왕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계보 중심의 五帝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찍이 동·남·서·북·중이라는 공간적 영역을 구분하는 인식에서 木·火·金·水·土라는 다섯 요소를 각각 배속하였고, 후대로 내려오며 이 다섯 요소의 물질적 속성을 이용하여 상생·상극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정의하고 만상의 이치를 풀이하는 다양한 활용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아울러 五行 순환 이론이 체계화되며 왕조의 계보 또한 풀이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전래문헌에 보이는 서로 다른 五帝의 형태와 함께 五行 상생의 순환과 대응되는 자료에 근거한다면, 전국시대 이후에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요소를 통해 정치적인 질서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편집된 五帝가 형성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東周 이전 시기의 五帝는 어떠한 형태로 등장할까?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 자료인 殷商시기 갑골문 검토를 통해 五帝의 형태를 추적해 보도록 한다.

20)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출토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새클러(Sackler) 미술관에 소장된 전국시대 子彈庫 楚帛書 과정에서 楚나라 月名을 기록한 同心圓으로 구성된 그림 아래 ‘木에 머물면 어떠한가(居木如何)’, ‘水에 머물면 어떠한가(居水如何)’, ‘土에 머물면 어떠한가(居土如何)’라고 하였고, 각각 색깔, 물품으로 방위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적 영역을 구분할 때 동·서·남·북·중이라는 방위사를 대신해 목·화·토·금·수라는 五材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李零, 「讀幾種出土發現的選擇類古書」, 『簡帛研究』(第三輯),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8年, 97쪽.

III. 갑골 자료로 본 ‘五帝’의 기원

殷商시대 갑골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 五帝 전승의 변천에 대한 紙上 자료와 地下 자료의 문헌적 연결 고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漢代 초기 劉安의 『淮南子』 기록을 제시하도록 한다. 『淮南子』는 자연의 질서, 인간 간의 도리, 사회 통치의 구조와 이치 등 통치자의 기본 자질과 사상, 자연 만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天文訓」과 「時則訓」에서 영토를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으로 구분하고, 이 다섯 방위를 바탕으로 五行과 결합하여 지리적 위치, 지배 계층의 인물, 자연계의 여러 형상을 분류 배속하였다.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을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淮南子·天文訓』: “무엇을 오성이라고 하는가? 동방은 木이다. 그곳의 帝는 태호이고 그 보좌는 구망이 하며, 컴퍼스(規)를 쥐고 봄을 다스린다. 그 신은 세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은 갑을이다. 남방은 火이다. 그곳의 帝는 염제, 그 보좌는 주명이 하며, 저울(衡)을 쥐고 여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형혹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土이다. 그곳의 帝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토가 하며, 먹줄(繩)을 쥐고 사방을 제어한다. 그 신은 진성(鎮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金이다. 그곳의 帝는 소호이고, 그 보좌는 옥수가 하며, 자(矩)를 쥐고 가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태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水이다. 그 帝는 전욱, 그 보좌는 현명이 하며, 저울추(權)를 쥐고 겨울을 다스린다. 그 신은 진성(辰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는 우, 그 날은 임계이다(何謂五星? 東方, 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爲歲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爲熒惑,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爲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²¹⁾

<표 3> 『淮南子·天文訓』의 五方 분류표

五方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帝	太皞	炎帝	黃帝	少昊	顓頊
五佐	句芒	朱明	後土	蓐收	玄冥
五執	規	衡	繩	矩	權
계절	春	夏	四方	秋	冬
五神	歲星	熒惑	鎮星	太白	辰星
五獸	蒼龍	朱鳥	黃龍	白虎	玄武
五音	角	徵	宮	商	羽
五日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위 「天文訓」의 내용과 <표 3>에서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계와 자연계의 여러 형태를 다섯 형태로 분류 구성하고, 특히 중앙을 가운데에 배속하여 동·남·중앙·서·북, 즉 木·火·土·金·水라는 五行 상생 이론을 토대한 당시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작용되었다. 또한 다섯 방위에 五帝를 각각 배속하여 동방-태호, 남방-염제, 중앙-황제, 서방-소호, 북방-전욱으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는 동 서적 「時則訓」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되었다.

『淮南子·時則訓』: “다섯 방위. 동방의 끝은 갈석산에서 시작하여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관통해, 동쪽의 해가 뜨는 장소에 이르며, 木土의 땅 청구 수목의 들판이다. 태호와 구망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1만 2천 리다. …… 남방의 끝은 북호손의 밖에서 시작하여 전욱의 나라를 지나고 남쪽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들판에 이른다. 적제와 축융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1만 2천 리다. …… 중

21)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年, 183-188쪽.

양의 끝은 곤륜산 동쪽에서 시작하여 두 개의 항산을 지나, 해와 달이 이르는 곳이며, 장강과 한수가 발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들판이며 오곡이 자라는 데 적합한 곳으로, 용문, 하수, 제수가 서로 관통해 식양으로 홍수를 막은 곳에서 동쪽으로 갈석산에 이른다. 황제와 후토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1만 2천 리다. …… 서방의 끝은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유사와 침우에 도달하고, 서쪽으로 삼위국, 석성의 금실, 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불사의 들판에 이른다. 소호와 육수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1만 2천 리다. …… 북방의 끝은 구택에서 시작하여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 북으로 영정 계곡에 이른다. 심한 추위와 얼음이 쌓이고, 눈 우박 서리 싸라기눈이 내리고, 떠나려가는 물이 한 곳을 맴도는 들판이다. 전욱과 현명이 다스리는 곳으로, 1만 2천 리다(五位. 東方之極, 自碣石山過朝鮮, 貫大人之國, 東至日出之次, 樽木之地, 青土樹木之野, 太皞, 句芒之所司者, 萬二千里. …… 南方之極, 自北戶孫之外, 貫顛頊之國, 南至委火炎風之野, 赤帝, 祝融之所司者, 萬二千里. …… 中央之極, 自昆侖東絕兩恒山, 日月之所道, 江漢之所出, 衆民之野, 五穀之所宜, 龍門, 河, 濟相貫, 以息壤堙洪水之州, 東至碣石, 黃帝, 後土之所司者, 萬二千里. …… 西方之極, 自昆侖絕流沙, 沈羽, 西至三危之國, 石城金室, 飲氣之民, 不死之野, 少皞, 蓐收之所司者, 萬二千里. …… 北方之極, 自九澤窮夏晦之極, 北至令正之谷, 有凍寒積冰, 雪雹霜霰, 漂潤群水之野, 顛頊, 玄冥之所司者, 萬二千里.)”²²⁾

<표 4> 『淮南子·時則訓』의 五方 분류표

五方	東方之極	南方之極	中央之極	西方之極	北方之極
五野	青土樹木之野	南至委火炎風之野	衆民之野	不死之野	漂潤群水之野
五帝	태호	적제	황제	소호	전욱
五佐	구망	축융	후토	육수	현명

이상, 「時則訓」에 보이는 내용을 보면 동방의 끝, 남방의 끝, 중앙의 끝, 서방의 끝, 북방의 끝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방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동방은 ‘부목의 땅(樽木之地)’, 남쪽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들

22)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年, 432쪽.

판에 이른다(南至委火炎風之野), 중앙은 ‘식양으로 홍수를 막은 곳(以息壤壅洪水之州)’, 서방은 ‘석성의 금실(石城金室)’, 북방은 ‘떠내려가는 물이 한 곳을 맴도는 들판이다(漂潤群水之野)’라고 하여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요소의 주요 성질에 기반을 두고 서술되었다. 더욱이 동방-태호, 남방-적제, 중앙-황제, 서방-소호, 북방-전옥으로 대응되어 중요 인물이 각 방위에 배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편 모두 방위를 중심으로 五行 상생 이론을 기초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이 같은 지리적 형태를 다섯 구역으로 구분하고, 오제와 함께 만사만물을 분류 배속한 전래문헌 기록의 원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殷商시대 갑골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殷商시대 갑골 자료에 근거하면, 영토적 공간을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형태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확대된 표현 또한 확인되어 이미 일찍부터 五方に 대한 개념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²³⁾ 특히 五行의 다섯 요소 또는 五行 상생상극 이론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방위를 다섯 형태로 구분하였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 증거 자료이다. 武丁시기 갑골 卜辭의 용례를 살펴보면:

東方曰析, 風曰荔. (『合』 14294.1)

동방은 析으로 불리고, 바람은 荔이다.

南方曰𠄎, 風曰崑. (『合』 14294.2)

남방은 𠄎으로 불리고, 바람은 崑이다.

23) 殷商시기 이미 영토적 관점을 中商, 東, 南, 西, 北이라는 다섯 방위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위에 의식을 거행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미 五方に 대하여 두 차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본고에서는 중복 서술하지 않는다. 박성우, 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85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1年. 박성우,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的 확대 형태」, 『中語中文學』第87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2年.

西方曰棗, 風曰彝. (『合』 14294.3)

서방은 棗으로 불리고, 바람은 彝이다.

(北方曰夬), 風曰役. (『合』 14294.4)

북방은 夬으로 불리고, 바람은 役이다.

辛亥卜, 內貞: 帝于北方曰(夬)風曰(役), 𠄎(年). (『合』 14295.7)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丙가 점을 쳤다. 北方을 夬으로 일컫고, 風을 役으로 일컬으며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辛亥卜, 內貞: 帝于南方曰𠄎, 風夷, 𠄎(年). (『合』 14295.8)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丙가 점을 쳤다. 南方을 𠄎으로 일컫고, 風을 夷으로 일컬으며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東方曰析, 風曰𠄎, 𠄎(年). (『合』 14295.9)

점치기를, 東方을 析으로 일컫고, 風을 𠄎으로 일컬으며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西方曰彝, 風曰棗, 𠄎(年). (『合』 14295.10)

점치기를, 西方을 彝로 일컫고, 風을 棗으로 일컬으며 帝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이상, 두 점의 갑골에 기록된 내용은 점을 치는 중심 공간에서 사방을 향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형태이다. 한 점의 갑골은 동·남·서·북의 시계 방향의 순서로, 다른 한 점은 北-南, 東-西로 서로 대치되는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방위를 타나낼 때 夬, 𠄎, 析, 彝으로 표현하였으며, 방위와 관련한 바람은 役, 夷, 𠄎, 棗으로 각각 신격화하여 명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殷商시기에 이미 지리적 범위를 지배층이 존재하는 공간으로부터 동·남·서·북 사방을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을 주재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한 인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

시 만물유생론을 믿는 인식과 농업에 생존과 번영을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민감한 반응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각 방위의 바람이 지역적 특징에 의거해 명명되었다는 주장 또한 확인되어²⁴⁾ 영토적 공간을 중요시한 당시 인식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 다섯 공간을 토대로 점차 발전된 형태의 표현은 당연한 사유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 이외에도 행위가 발생하는 중심 공간을 더욱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공간적 개념을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을 내포하고 있는 용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燎于土, 宰{牢}. 方帝. (『合』 11018正.3)

土에게 燎 제사하고, 제물을 사용한다. 帝에게 方 제사한다.

□午卜, 方帝三豕又犬, 卯于土, 宰{牢}. (『合』 12855)

□午에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帝에게 方 제사하고, 3 마리의 돼지와 개를 사용한다. 土에게 卯 제사하고, 제물을 사용한다.

위 용례는 土와 帝에게 동시에 제사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土’를 ‘社’로 읽는 점에 대해서 학계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²⁵⁾ 『爾雅·釋天』에서 “豕土를 세우니(乃立豕土)”라고 하여, 郭璞의 注를 보면, “豕土는 大社이다(豕土大社).”²⁶⁾라고 하였고, 『尚書·周書·泰誓上』에서 ‘豕土에 宜祭를 지내고(宜于豕土)’라고 하여 孔安國 傳을 보면, ‘社에 제사 지내는 것을 宜라고 하고, 豕土는 社이다(祭社曰宜, 豕土社也).’²⁷⁾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逸周書·作雒解』에서 ‘도읍의 중앙에서 大社를 세우다(乃建大社于國中).’²⁸⁾라고 하여 ‘社’는 중앙에 거행하는 제사를 지칭하고, 이에 위 제

24) 于省吾, 『釋四方和四方產的兩個問題』,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79年, 123쪽.

25)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年, 486-487쪽.

26)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年, 2610쪽.

27)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年, 181쪽.

시한 갑골 복사 또한 중앙을 향하여 제사를 거행하는 내용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詩經·大雅·雲漢』에서 “올해도 일찍이 풍년을 빌었고, 갖가지 제사도 지냈지만(祈年孔夙、方社不莫)”이라고 하여 鄭元 箋를 보면, “풍년의 간청을 매우 일찍이 드렸고, 四方과 社의 제사 또한 늦지 않았다(我祈豐年甚早, 祭四方與社又不晚).”²⁹⁾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근거로 胡厚宣은 方은 四方, 社는 중앙을 의미하고, 이를 합하여 五祀라고 지칭하며, 五方的 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³⁰⁾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면 은상시기 이미 五方に 대한 인식과 五方을 향한 모종의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으로, 갑골 복사에는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위를 각각 관할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듯한 용례 또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庚午貞：秋大稱，于帝五多臣寧。在祖乙宗卜。茲用。(『合』 34148)

庚午일에 접치기를 메뚜기가 기승하여 帝의 五多臣에게 祖乙의 종묘에서 균열을 내니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貞：其寧秋于帝五多臣，于甲告。(『屯』 930.2)

접치기를 帝의 五多臣에게 제사를 거행하면 메뚜기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공 上甲微에게 보고한다.

辛亥卜□五臣□。(『合』 30391.1)

辛亥일에 균열을 내어 □五臣□.

王又{侑}歲于帝五臣正，佳亡雨。(『合』 30391.2)

왕이 帝의 五臣正에게 侑歲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_上又{侑}于帝五臣，又{有}大雨。(『合』 30391.3)

28) 黃懷信, 『逸周書校補注譯』,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996年, 256쪽.

29)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年, 562쪽.

30)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年, 487쪽.

帝의 五臣에게 侑 제례를 지내면,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이상 용례에 보이는 帝五臣, 帝五臣正, 帝五多臣의 정확한 사회적 지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생존과 연관된 농업과 날씨의 조정을 기원하는 형태에 근거한다면 사회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막대한 존재로 여겨진 듯하다. 또한 비록 이들이 다섯 방위를 각각 주재한다고 인식할 만한 근거를 동 시대의 다른 갑골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후대의 문헌 『左傳』 昭公29年の 木·火·土·金·水라는 요소로 다섯 방위를 대체 표시하고 句芒, 祝融, 蓐收, 玄冥, 后土를 각각의 방위에 배속한 용례와 『左傳』 昭公17年の “五雉로 五工正을 삼다(五雉爲五工正).”라고 하여 雉로 관직을 명명하고, 杜預 注에서 “五雉의 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西方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東方의 雉를 鷩雉라고 하며, 南方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 北方의 雉를 鷮雉라고 하고, 이수와 낙수 남쪽의 雉를 翬雉라고 한다(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鷦雉, 東方曰鷩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鷮, 伊洛之南曰翬).”³¹⁾라는 다섯 방위에 각각 배속되어 관할 구역을 주재한다는 후대 기록에 비추어 본다면, 본래 갑골의 帝五臣이라는 기초 형태에서 확대 변천되어 발생한 후대의 결과물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 제시한 殷商시기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殷商시기 이미 지리적 구역을 동·남·서·북·중이라는 오방의 형태가 정의되어 사용되었고, 또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점차 각 방위의 제사 또는 중요 인물이 배치되는 형태가 등장하였으며, 후대에 五帝, 五臣, 五神, 五佐, 五獸 등의 개념으로 변천 정착되었다. 이와 관련한 기록으로 『禮記·月令』에서는 “이로써 山川의 제사와 帝의 大臣, 天의 神祇의 제사를 모두 마친다(乃畢山川之祀, 及帝之大臣, 天之神祇).”라고 하여 鄭玄 注에서는 “孟월에 종묘에 제사하고, (季月) 때에 이르러 佐臣에게 제사한다(孟月祭其宗, 至此可以祭其佐也).”라는 내용이 있으며, 孔穎達

31)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388쪽.

疏에서는 “五帝에게 제사하고, 大臣 句芒에게 부차적으로 제사한다(則五帝爲宗, 大臣句芒等爲佐).”³²⁾, 『周禮·春官宗伯·小宗伯』 王逸 注는 “五帝는, 五方の 神이다. 東方의 大皞, 南方의 炎帝, 서방의 少昊, 북방의 顓頊, 중앙의 黃帝이다(五帝, 謂五方神也. 東方爲大皞, 南方爲炎帝, 西方爲少昊, 北方爲顓頊, 中央爲黃帝).”³³⁾라는 기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 이미 五方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었고, 五方이라는 공간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각 방위를 대상화하여 제사를 거행하였으며, 다섯 구역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듯한 五臣의 형태로 확대 표현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점차 후대로 내려오며 의미가 확대 변천되었고, 동주시기 이후 공간 중심의 다섯 형태에서 五行 상생상극이라는 이치로 우주만물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는 이론이 시도되었으며, 시간적 관점의 존재, 즉 계승되어 내려오는 계보와 결합된 五帝로 확대 변천된 개념이 발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五行 상생이론에 기초해 형성된 少昊, 顓頊, 高辛, 帝堯, 帝舜 또는 黃帝, 顓頊, 嚳, 堯, 舜 등의 五帝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최고 존엄한 대상을 의미하는 帝와 함께 호칭되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史記』 「五帝本紀」에서는 黃帝 軒轅을 시작으로 帝顓頊, 帝嚳, 帝堯, 帝舜으로 나열되었고, 漢代 宋衷이 주해하고 清代 茆泮林이 편집한 『世本』에서 또한 黃帝를 시작으로 帝少皞, 帝顓頊, 帝嚳, 帝堯, 帝舜의 순서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夏 왕조의 왕 帝杼, 帝芬, 帝降 등 또한 帝를 붙여 함께 기록되었다.³⁴⁾ 더욱이 黃帝인 軒轅을 『國語·魯語上』 注에서 “황제는 소전의 후손 제전욱이다(黃帝, 少典之裔

32)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384쪽.

33) [清]孫詒讓 撰,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年, 1429쪽.

34) [漢]宋衷 注; [清]秦嘉謨等輯, 『世本八種』, 北京: 中華書局, 2008年, 7-13쪽.

子帝軒轅也).”³⁵⁾, 『帝王世紀輯存』에서는 『路史後記』에서 인용한 『帝王世紀』 “황제는 혹은 이르기를 帝軒이라고 한다(黃帝)或曰帝軒.”³⁶⁾라고 하여 帝軒轅으로 기록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黃帝를 포함한 五帝에 배속된 모든 대상이 일괄적으로 帝와 조합되어 기록되었다.

夏 이전의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인 俊, 江, 顓頊, 堯, 丹朱, 炎帝, 夷羿 등과 夏·商시기의 여러 왕에게 모두 帝가 어울려 칭해졌다고 한다.³⁷⁾ 『大戴禮記·誥志』에서 “천자가 죽으면, 四川에 步 제사를 하고 四山에 代 제사를 하며, 마지막에 장사를 지내고 帝라고 부른다(天子崩, 步于四川, 代于四山, 卒葬曰帝)”³⁸⁾라고 하였고, 『禮記·曲禮下』에서는 “천하의 임금을 天子라고 한다. ……(천자가) 죽으면 ‘천왕이 崩하였다.’고 한다. …… 宗廟에 모시어 神主를 세운 뒤에는 ‘帝’라고 칭한다(君天下, 曰天子. …… 崩, 曰天王崩. …… 措之廟, 立之主, 曰帝).”³⁹⁾라고 하여 왕 신분의 인물이 죽고 난 이후 帝로 호칭하였다는 문헌 기록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史記』의 夏, 殷 두 本紀에 보이는 왕명에 ‘帝’자가 추가되었다는 견해 또한 살펴볼 수 있다.⁴⁰⁾

왕이 죽으면 帝로 호칭한 체제는 일찍이 殷商시기 갑골 복사에서 확

35)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組校點, 『國語』(共二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168쪽.

36) 徐宗元 輯, 『帝王世紀輯存』, 北京: 中華書局, 1964年, 19쪽.

37) 徐旭生, 「五帝起源說」,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年, 238쪽.

38) 黃懷信 主撰, 『大戴禮記彙校集注』, 西安: 三秦出版社, 2004年, 1073쪽.

39)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22-126쪽.

40) 裘錫圭는 이와 같은 견해를 나타내며, 갑골 복사에 근거하여 商王은 죽은 父王에게 帝를 칭하였는데, 旁系 先王에게는 帝를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래 문헌 기록의 모든 부분을 신뢰할 수는 없고, 『史記』 또한 直系와 旁系와 관계없이 모든 왕명 앞에 ‘帝’를 연결하여, 이 부분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裘錫圭, 「關於商代的宗族組織與貴族和平民兩個階級的初步研究」, 『裘錫圭學術文集(古代歷史、思想、民俗卷)』(第五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 123쪽.

인할 수 있다. 돌아가신 직계 亡父의 시호 앞에 帝자를 연결하여 祖甲의 아버지 武丁을 ‘帝丁’(『書』27372)으로 기록하였거나, 廩辛, 康丁의 아버지 祖甲을 ‘帝甲’(『書』27438)으로 기록하였으며, 商代 후기 청동기 卣其壺(『集成』5413)에서 또한 帝辛의 아버지 乙을 ‘帝乙’로 기록하였다. 즉 ‘帝丁’, ‘帝甲’, ‘帝乙’ 등의 ‘帝+亡父’로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에 帝는 초월적 존재 또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절대권능의 최고 존엄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죽은 왕의 시호와 함께 쓰여 역대 왕조를 지칭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바꿔 말하면, 五帝에 속한 존재에 帝를 덧붙여 호칭한 이유는 흔히 인식하는 절대권능의 최고 존엄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돌아간 망부를 나타내기 위한 칭호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殷商시기에 이미 영토적 관점을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형태로 구분하였고, 중앙이라는 지배층의 거점 공간으로부터 네 방위를 향한 중요 의식 행위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섯 방위를 각각 관장하는 듯한 五臣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함께 점차 후대로 내려오며 東周시기에 이르러 五行 상생상극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동시에 五行의 운행 논리에 의해 왕조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변천 및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형성된 이후, 五行 상생에 기초한 왕조의 계보를 해석하는 인식 혹은 五行 상생에 부합하여 왕조의 계보를 편집하려는 경향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다시 말하면, 徐旭生の “삼황오제의 관하여 최술의 ‘옛날에 본래 皇이라는 명칭이 없었으며, 帝 또한 다섯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논단한 것이 가장 명확하다.”⁴¹⁾라고 결론지었듯이 본래 五帝는 東周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며, 東周시기에 五行 상

41) 徐旭生, 「五帝起源說」,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年, 252쪽.

생·상극의 원리가 체계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이론과 아울러 후대 왕조의 정치체제와 정치적인 질서에 의해 짜인 계보로 줄곧 동아시아 사람들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이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의 전래문헌을 통하여 五帝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출토된 殷商 갑골 자료를 통하여 그 본질적인 형태를 추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역사 흐름에 뿌리내려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킨 이들의 계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반추해 보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래문헌에 서술된 五帝에 근거하면, 대부분 추연의 五行 상생상극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후에 五行 상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선정된 인물은 저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五帝를 역사적 맥락에서 왕조 체제에 따라 계승된 관계로 이해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지어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殷商 甲骨 자료로부터 동주시기 이후 五行 상생 이론이 나타나기까지의 기록 전승 과정을 살펴본다면 五帝로 선정된 이들의 계보는 정치적 해석에 근거하여 역사화가 완성된 후대의 자료로 인식할 수 있다.

엄밀히 따져 보자면,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요소에 기초한 五行 상생·상극이 등장하기 전 殷商시기에 이미 지리적 관점을 동·남·서·북·중 다섯 형태로 구분한 五方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층이 거처하는 공간 중앙에서 사방을 대상화하여 중요 의식 행위를 거행하였거나, 중앙을 商 또는 中商으로 칭하며 이를 중심으로 사방을 향해 제사와 점을 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섯 구역의 책임자 속성을 지닌 五臣의 형태로 확대되었고, 이 같은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반복적으로 확대 변천되는 과

정을 거쳐 필사된 전래문헌에서 五帝를 포함한 五官, 五臣, 五神, 五佐라는 명칭, 그리고 만사 만물이 다섯 방위에 배속되는 동아시아 고유의 사유체계가 형성되었다.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공간 중심의 다섯 형태가 동주시기 이후 새로운 五行 상생·상극 이론이 체계화되었고, 만물의 모든 현상을 이에 의존해 해석하려는 시도가 발생되었으며, 왕조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변천 또한 이를 통해 풀이되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지리방위적인 다섯 공간에 배속된 五帝와 五行 상생에 기초한 五帝는 서로 별개의 결과물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적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이라는 시간적 관점으로 확대 변천되어 왕조 건설의 합리성과 정통성 확보에 활용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주와 진한시기에 五行 상생에 기초하여 왕조의 계보가 가공되어 편성된 지배층 집단 중심의 五帝가 창출되어 형성된 것이다.

◇ 논문투고일: 22.05.31 / 심사완료일: 22.06.24 / 게재확정일: 22.06.28.

<참고문헌>

- 〔漢〕蔡邕,『獨斷』卷上.
〔漢〕蔡邕,『獨斷』卷下.
〔漢〕司馬遷撰,『史記』(全十冊),北京:中華書局,1963年.
〔漢〕司馬遷撰,『史記』,北京:中華書局,2013年.
〔漢〕宋衷注,『世本八種』,上海:商務印書館,1957年.
〔漢〕宋衷注;〔清〕秦嘉謨等輯,『世本八種』,北京:中華書局,2008年.
〔漢〕許慎撰;〔宋〕徐鉉校定,『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1963年.
〔唐〕陸德明,『經典釋文』,北京:中華書局,1983年.
〔清〕陳立撰,『白虎通疏證(全二冊)』,北京:中華書局,1994年.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全二冊)』,北京:中華書局,1980年.
〔清〕郭慶藩撰,『莊子集釋(全四冊)』,北京:中華書局,1961年.
〔清〕孫詒讓撰,『周禮正義』,北京:中華書局,1987年.
李學勤主編,『十三經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年.
蘇輿撰,『春秋繁露義證』,北京:中華書局,1992年.
王雲五主編,「世本·帝王世本」,『叢書集成初編』,上海:商務印書館,1937年.
王雲五主編,『叢書集成初編,孔子家語疏證(二)』,上海:商務印書館,1985年.
王雲五主編,『叢書集成初編,孔子家語疏證(三)』,上海:商務印書館,1985年.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十三經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年.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組校點,『國語』(共二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年.
陳奇猷校釋,『呂氏春秋校釋』,上海:學林出版社,1984年.
何寧撰,『淮南子集釋』,北京:中華書局,1998年.
胡厚宣,胡振宇,『殷商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3年.
黃懷信,『逸周書校補注譯』,西安:西北大學出版社,1996年.
黃懷信主撰,『大戴禮記彙校集注』,西安:三秦出版社,2004年.
徐旭生,『五帝起源說』,『中國古史的輻輳時代』,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3年.
徐宗元輯,『帝王世紀輯存』,北京:中華書局,1964年.
楊伯峻,『春秋左傳注(修訂本)』,北京:中華書局,1981年.

- 于省吾, 「釋四方和四方產的兩個問題」,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79年.
- 정영호 해역, 『呂氏春秋』, 서울: 자유문고, 2006年.
-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舍 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1年.
- 李 零, 「讀幾種出土發現的選擇類古書」, 『簡帛研究』(第三輯),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8年.
- 李學勤, 「古史、考古學與炎黃二帝」, 『走出疑古時代』,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年.
- 裘錫圭, 「關於商代的宗族組織與貴族和平民兩個階級的初步研究」, 『裘錫圭學術文集(古代歷史、思想、民俗卷)』(第五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
- 박성우, 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85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1年.
- 박성우,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의 확대 형태」, 『中語中文學』第87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2年.

Abstract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Five Emperors / Park,
Seongwoo · Moon, Chiung

This study trace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ive Emperors (五帝) through the traditional literature of ancient East Asia, and examined its essential form through the excavated Oracle bone script data. The representative great men selected as Five Emperors appear slight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es and literature. As a result, the Five Emperors concept was created to secure their historical legitimacy and legitimacy of state management by creating a Chinese-centered worldview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Qin and Han Dynausty. Five Emperors were selected from the main great men who influenced ancient China during the Pre-ancient era.

The principle applied to the selection is the theory of the application of five elements claimed by the Chueh-yeon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based on this, a genealogy in the form of the history presented in a series of biographies was written. In the Shanghai dynasty era, there was already a systematic recognition of the five direction and their areas, which divided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into five types: East, South, West, North, and Center. At that time, the five districts were appointed to represent themselves in the form of the Five the king's servants (五官), and the concept was expanded and changed with the flow of the times, with the names Five vassals (五臣), Five kings, or Five administrative assistants (五佐). Also, an unique the East Asian Philosophical Concept of Relationship system was formed in which everything was assigned to elements that represent five directions.

After East Zhou dynasty, the use of five spatial-centered elements was systematized by a new theory of the mutual generation (相生) or the mutual overcoming (相克), and attempts were made to interpret the phenomenon of

everything based on the concepts. The rise and fall of the dynasty and the change of history were also interpreted based on the mutual generation (相生) or the mutual overcoming (相克) concepts. Strictly speaking, the Five Emperors distributed in five geographical spaces and the Five Emperors based on the mutual generation and the mutual overcoming concepts are completely different results.

This new concept is interpreted as being used to secure the rationality and legitimacy of the construction of the dynasty by expanding its meaning from a spatial perspective that exists in reality to a temporal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emergence and formation of a new concept, Five Emperors, was based on the mutual generation and the mutual overcoming concepts during the East Zhou dynasties and Qin and Han periods. As a result, the new concept of Five Emperors is a genealogy created to highlight the legitimacy and claim historical legitimacy of their history while creating a Chinese-centered world view during the Warring States and Qin and Han dynasties.

Key words: Five elements (or Five Phases), Five Emperors (五帝), mutual generation (相生), the mutual overcoming (相克), Oracle bone script.